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5. 11. 24.(월) 즉시 보도 가능		
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		조직위원장	고문삼	☎ 762-3091
		사무국장	허상보	☎ 762-3091

2025 제주감귤박람회, 6.3만 명 참여 속 성황리 폐막

- 박람회 현장 직접 매출 5.2억 원, 직·간접 경제파급효과 160억 원 이상 기대 -
- 겨울철 제주 대표 관광 콘텐츠로 확고히 자리매김 -

- 2025 제주감귤박람회(이하 ‘감귤박람회’)가 24일 오후 3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메인무대에서 폐막식을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.
- (사)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(위원장 고문삼)에 따르면 올해 박람회에는 총 63,488명이 방문했다. 이는 국내 행사로 치러졌던 2023년(62,334명) 대비 1.8% 증가한 수치로, 감귤박람회가 겨울철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.
- 특히 도외 방문객 비중이 52%로 나타나 전국적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. 방문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, 도외 방문객 중 34.1%가 감귤박람회 관람을 제주 방문의 주된 목적으로 꼽아 박람회가 겨울철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.
- 올해 박람회는 지역민과 감귤농가가 주인공인 글로컬(Glocal) 축제로 운영돼,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했다.
- 개막 퍼레이드에는 감귤농민과 지역단체 등 400여 명이 참여해 지역 축제로서의 위상을 높였으며, 해병군악대·자치경찰기마대·풍물패 등이 함께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
- 또한 한국중등교장협의회와의 협업을 통해 동계직무연수 기

간 중 전국 중고등학교 교장 800여 명이 박람회를 찾았고, 전국 농업인단체·기업·기관 등에서 3,000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했다.

- 아울러 박람회를 찾은 해외 관광객들도 이목을 끌었다. 대만, 인도,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제주를 대표하는 감귤의 매력을 만나기 위해 박람회장을 찾았다.

□ 박람회의 경제적 성과도 두드러졌다.

- 박람회 현장에서만 총 5억 2천만 원의 직접 매출이 발생했다. 농기자재(49개 업체)·감귤산업관(19개 업체)·직거래장(19개 업체) 등에서 약 4만 건의 상담이 진행됐다.
- 이를 기반으로 직·간접적 경제적 파급효과는 1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감귤 판매 확대와 홍보 효과, 제주감귤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을 고려하면 경제유발효과는 7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.

□ 문화 축제로서의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.

- 스페인 토마토 축제를 재해석한 신규 콘텐츠인 ‘넘버원 감귤왓’은 주말 사전예약 조기 마감, 현장 참여 문의 쇄도 등 참여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. 감귤다이닝 또한 주말 사전예약 마감, 단품 구매 완판을 기록했다.
- 대한민국 감귤관은 5일간 1만 5,872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최대 주목 공간으로 자리했다. 340종의 감귤 품종 전시는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, 감귤품평회 수상작 전시를 통해 품평회 참여 문의가 확대되는 등 감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간 교류 확대에 기여했다.

- 고문삼 조직위원장은 폐회사에서 “이번 박람회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온·오프라인을 활용한 다각적 홍보와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방문객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”이라며 “박람회를 찾아주신 모든 관람객과 도민, 참여 업체, 협력 기관 및 단체에 깊이 감사드린다”고 말했다.
- 이어 “앞으로도 제주감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, 겨울철 국민 간식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전했다.
- 한편, 제주감귤박람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며, 2026년 박람회는 11월 19일 목요일에 개최될 예정이다.